광주도시공사 핸드볼 첫 챔프 도전 '물거품'

핸드볼코리아 챔프전 … 삼척시청 벽 못 넘어 준우승
포스트 시즌 2연속 진출 … 창단 이래 최고 성적 만족

창단 첫 핸드볼코리아 리그 챔프에 도전했던 광주도시공사가 삼척시청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올시즌 정규 리그 2위에 올라 창단 이래 최고 성적을 일궈낸데 이어 포스트시즌에 진출해 통합 2위라는 새역사를 쓰고 시즌을 마감했다. 광주도시공사는 '포스트 시즌 진출'이라는 올시즌 팬들과 약속도 지켰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31일 삼척시민체육관에서 열린 2021-2022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챔피언결정 2차전에서 삼척시청에 23-24(12-13, 11-11)로 무릎을 꿇었다.

1차전에서 17-22로 패한 광주는 이날 6골차 이상으로 이겨야 하는 부담을 안고 경기했다.

광주는 주전들의 슛이 터지면서 전반전을 12-13으로 마감하는 등 대등한 경기를 벌였다.

강경민이 6골을 넣었고 박조은 골키퍼는 방어율 40%(14/35)로 분전했다.

하지만, 지난 시즌 챔피언결정전에서 준우승한 삼척시청은 노련함으로 광주도시공사의 파상공격을 막아냈다.

광주도시공사는 후반 28분께 23-24까지 따라붙었으만 승부를 뒤집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시즌 SK핸드볼 코리아리그에서 새로운 역사를 썼다. 정규리그 4위라는 최고 성적을 거뒀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통합 3위에 올랐다. 올해는 창단이래 최고성적인 정규리그 2위에 오른데 이어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SK를 꺾고 챔프전에 올랐다.

한편, 삼척시청은 2013년 9월에 끝난 2013시즌 이후 8년 6개월 만에 코리아리그 우승컵을 탈환했다. 2011년 출범한 코리아리그에서 삼척시청은 2013시즌에 이어 두 번째 정상에 올랐다. 슈퍼리그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열린 2009년과 2010년 우승까지 더하면 네 번째 리그 정상 등극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원선필이 지난 31일 삼척시민체육관에서 열린 2021-2022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챔피언결정 2차전 삼척시청과 경기에서 슛하고 있다.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광주시청 강다슬 실업육상 3관왕

여 100·200m·1600m혼성계주 금
김국영·모일환·한정미 2관왕
광주시청 금메달 7개 휩쓸어

강다슬

광주시청 강다슬(30)이 제26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3관왕에 올랐다.

김국영(31)과 모일환(23), 한정미(26)는 각각 2관왕을 차지했다. 광주시청은 시즌 첫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7개를 휩쓰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전국 최강 실력을 재확인했다.

강다슬은 지난 31일 여수 망마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일반부 200m와 1,600m 혼성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전날 여자 100m에서 한국신기록에 가까운 기록(11초59)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던 강다슬은 이날 200m에서도 24초72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강다슬은 이어 1,600m 혼성계주에도 참여, 광주시청의 1위에 힘을 보탰다.

1,600m 혼성계주도 적수가 없었다. 장지용-한정미-강다슬-이준이 이어 달린 광주시청은 3분36초73으로 금빛 레이스를 펼쳤다. 전날 여자 4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한정미도 계주 우승으로 대회 2관왕이 됐다.

김국영은 남자 400m 계주에서 막판 역전레이스를 펼치며 대회 두 번째 금메달을 차지했다.

광주시청은 여호수아-김민균-모일환-김국영이 호흡을 맞췄고 마지막 주자인 김국영이 짜릿한 역전 질주를 선보이며 40초78로 1위를 기록했다.

모일환은 계주에 앞서 남자 200m에서 21초15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대학부에서도 남자일반부보다 좋은 기록을 선보였던 모일환은 첫 성인무대에서 여전한 실력을 뽐냈고 2관왕에 올랐다.

광주시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7개를 휩쓸었다. 남녀 100m와 남녀 200m, 여자 400m, 남자 400m 계주와 1,600m 혼성계주 모두 1위다. 여자 허들 간판 정혜림, 남자 멀리뛰기 김덕현이 시합에 나서지 않은 상황인데도 시즌 첫 대회부터 금메달 7개를 쓸면서 광주시청의 올해 경기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은 "첫 실전임을 고려하면 이번 대회 성적이 매우 좋다. 금메달 7개는 거의 10여 년만인 것 같다"면서 "선수들이 정말 잘 뛰어줬다"고 칭찬했다. 이어 "강다슬의 기록이 정말 좋았다. 100m에만 집중해서 한국신기록을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AI페퍼스, 베테랑 세터 이고은 영입

"팀 성장에 보탬 되겠다"

광주 페퍼저축은행 여자배구단 AI페퍼스가 베테랑 세터 이고은(27)을 영입하고 전력 강화에 나섰다.

AI페퍼스는 창단 후 처음으로 참가한 FA시장에서 이고은과 3년 계약을 맺었다고 31일 밝혔다. 연봉 3억원, 옵션 3000만원으로 총 보수는 9억9000만원이다.

이고은은 지난 2013-2014시즌 신인지명에서 전체 3순위로 한국도로공사에 입단했다. 이후 IBK기업은행, GS칼텍스를 거쳐 다시 한국도로공사로 돌아와 총 9시즌을 뛰었다. 2021-2022시즌 한국도로공사에서 세트당 평균 7.41개의 세트를 기록, 이 부문 전체 8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고은은 지난 시즌 고질적인 '선수 부족'에 시달렸던 AI페퍼스에게 더욱 소중하다.

지난 시즌 AI페퍼스는 이현, 구솔, 박사랑 3명의 세터로 팀을 꾸렸다. 하지만 박사랑이 부상으로 3라운드 동안 결장하면서 사실상 이현·구솔로만 경기를 소화해야 했다. 주전 세터로 뛴 경험이 없던 이현이 빡빡한 경기 스케줄에 큰 부담을 받았던 것은 물론, 세터의 공격 전술도 단순해져 상대에게 쉽게 읽히곤 했다.

프로리그 9년차 경력을 갖춘 AI페퍼스 '최고참'으로서 노련함도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고은은 2016-2017시즌에는 라운드MVP(5R)에 선정된 적 있으며, 2016년 AVC컵 대회에서 국가대표팀 주장을 맡았던 경력도 있다. GS칼텍스와 한국도로공사에서 주전 세터로 뛰었던 경험도 강점이다.

이고은은 "제 가치를 인정해주고 관심을 보여준 AI페퍼스에 감사하다"면서 "밝고 패기 넘치는 팀에서 솔선수범하며, 팀의 성장에 보탬이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형실 AI페퍼스 감독은 "신생구단으로서 장기적인 팀 빌딩 관점에서 베테랑 세터 영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이고은 세터로서 경험뿐 아니라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인 만큼 팀 전력이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고은

AI페퍼스에게 남은 숙제는 센터 보강이다. 지난 시즌 AI페퍼스는 경험 있는 센터가 부족해 라이트 하혜진을 센터로 포지션 변경하고 최가은과 함께 기용했다. 다만 이번 FA시장에서 센터는 '최대어'로 꼽히는 양효진 1명뿐이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FC, 경남 원정서 1위 도전

3일 K리그2 2022 8라운드
선두 부천과 승점 1점 차이

분위기 살린 광주FC가 경남 원정에서 연승을 잇는다.

광주가 3일 오후 1시 30분 밀양종합운동장에서 경남FC를 상대로 K리그2 2022 8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3연승에서 멈췄던 광주는 지난 라운드 충남아산과의 홈경기를 통해서 다시 승점을 더했다.

이으뜸과 헤이스의 득점으로 2-1 승리를 거둔 광주는 승점 12점으로 2위가 됐다. 선두 부천FC(승점 13)과는 승점 1점 차다.

광주는 경남과 '창과 창'의 승부에 나선다.

경남은 하남과 이의형 그리고 광주전에 복귀하는 에르난데스 등을 앞세워 올 시즌 10골을 넣으면서 득점 1위에 올라있다.

광주는 4골을 기록한 '브라질 특급' 헤이스의 활약 속에 경남에 이어 최다 득점 2위(9골)에 자리했다. 새 외국인 공격수 마이키가 지난 라운드 선발 출장을 하면서 페이스를 끌어올렸고, 장신 공격수 허율도 헤이스의 결승골을 도우면서 눈길을 끌었다. 이으뜸은 날카로운 왼발 프리킥으로 팀의 선제골을 만드는 등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위압감도 더해졌다.

광주가 매서워진 창으로 경남의 위태로운 방패를 뚫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남드래곤즈는 안방에서 6경기 연속 무패행진에 도전한다. 전남은 지난 7라운드 안산그리너스와의 홈경기에서 0-1로 뒤진 후반 31분 기록된 카차라바의 페널티킥 골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날 70%의 볼 점유율을 보이는 등 경기를 주도하고도 4연승에는 실패했지만, 5경기 연속 무패(3승 2무)를 기록했다.

초반 3경기 무득점의 부진을 턴 전남은 '특급 외국인 공격진'을 앞세워 승점을 쌓아가고 있다.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됐던 선수들이 서울이랜드전을 통해 복귀하면서 전술의 폭도 넓어지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모비우스
2관	모비우스
3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4관	모비우스
5관	배니싱: 미제사건
6관	모비우스
9관	뜨거운 피
7관 씨네커플	뜨거운 피, 극장판 주술회전 0
8관 씨네커플	더 배트맨, 문폴, 드라이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포커스
뮤지컬 앤Anne
일시 : 2022.04.02.(토)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GAC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보헤미안들이 사랑한 도시, 파리
일시 : 2022.04.27.(수)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